

内賜

斥邪論音

録

가람 ^{RF}
349.1
H41s



斥邪綸音

道光十九年十一月 日

内賜部將

下邪

綸音一件



命除謝

恩

待教

臣

南

秉哲

道光十九年十一月 日

內

張寅植斥邪

綸音一件



命除謝

恩

待教

臣

南

秉哲

大學
349.1
H418



論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王若曰嗚呼中庸曰天命之謂性尚書曰惟皇
上帝降衷于下民若有恒性其論一原畀賦
之初曰天曰上帝者天以形體言上帝以主
宰言也曰命曰降衷者非諄諄然真有詔告
也一理所發二氣斡焉四序所運萬品育焉
人得之為性者其德有四曰仁義禮智也其
倫有五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也此皆
當然而然無待乎安排布置勉強作為故曰
天生烝民有物有則率之則為順天悖之則

為逆天凡所以奉天而事上帝者豈有出於
四端五倫之外哉嗚呼粵自羲農堯舜繼天
立極其寅畏而祗承惇叙而敬敷者惟此而
已亦粵我夫子祖述憲章之後至于有宋羣
賢其明天理淑人心者惟此而已毫釐有差
猶謂之異端况乎陰沴荒誕怪詭不經之外
道乎國有常刑必殺無赦此所謂辟以止辟
也嗚呼我東慶文明之鄉襲仁賢之化羨風
善教厥惟久矣洪惟我

聖祖受天明命肇造區宇明彝倫以立人紀崇

道學以正國俗

聖子神孫做戒不怠丕克對越于天而休運永
孚儒賢輩出上自公卿大夫下逮閭巷匹庶
戶服洙泗之行家誦洛閩之書男以忠孝為
本女以貞烈為重冠昏喪祭必遵乎禮士農
工商各遂其業式至今胥匡以生國家賴焉
矧惟我

正宗大王挺天縱之聖紹百王之統聲明文物
粲然具備而不幸有凶賊承薰者購來西洋
之書號為天主之學非先王之法言而潛相

承薰李東柳之子家
煥之甥東柳為書快時
家煥鳩銀子一百兩益購
其所未見諸般妖書以來

才藝謂丁若鍾李遠達
權日身輩也
瞭無知覺謂崔必恭尹持
忠權尚望輩也

柳宰家煥也

家傳詩禮謂達伯淳也

文漢江南嶺州人家煥使

黃沁五千禧潛入天主堂

迎來留置洪周萬妻妾

完淑家完淑標子

嗣永即黃術將軍之後

丁若鉉婿也辛酉亡命入

提川土虛作帛書潛通

天主堂為選者所獲命

以尺三寸帛作三萬言命

有三策其一卷天子藥置

一都督府使攝制國人共三

請西洋兵十萬一場判決共三
權尹兩賊塚上起學堂廣
設教場嘯聚徒黨以謀

誑誘非聖人之正道而馴致耽惑駸駸然入
於夷狄禽獸之域於是乎

正廟憂其久而愈熾也治其魁宥其餘克推欲
生之念俾開自新之路恩莫厚矣德莫盛矣
雖豚魚之頑梟獍之凶亦當有所感悟而本
性既喪舊習不悛以至辛酉討邪之獄而極
矣其薄有才藝者艷其新而倡之矇無知覺
者樂其誕而從之身處鄉宰自作窩窟家傳
詩禮亦有染汚而文謨則變薙制敢行都市
嗣永則裁帛書欲招海船凶圖逆節於斯為

急苟非我

純宗大王暨我

貞純大妃悉燭魑魅之奸大振斧鉞之威廓闢
而痛鋤之則國之為國人之為人未有未可知
也嗚呼今距辛酉四十年所禁網寢䟽邪教
又盛虺蜮匿影稂莠易種逆豎變姓而出沒
妖譎齎貨而交通潛募洋人至再至三而聲
氣接於異域脉絡遍於同黨比諸辛酉殆有
浮焉肆乎小子謹遵

皇祖之謨恭奉

逆豎若鍾子夏帝
妖譎劉進吉也己亥伏誅
洋人范世英鄭牙各伯羅
伯多祿己亥款誘在首

慈聖之命不敢不行天之罰雖其迷昏而莫之
返淪沒而莫之拯駢首連肩自底大戮而予
惟為民父母其能無哀矜惻怛之心戚戚于
中哉嗚呼予聞不教而刑謂之殃民予當以
邪教源委逐條下析用播告于爾在廷臣隣
及我八方士女俾各曉然爾尚欽哉嗚呼彼
為天主之學者曰是學也乃敬天也尊天也
天固可敬可尊而彼所以敬且尊者不過如
滌罪邀寵之諸鄙事自歸於慢天褻天也吾
所以敬且尊者即向所謂四端五倫之昭天

命順皇降而日用事為之當於理也邪正之分不待兩言且彼耶穌云者不知其是人鬼是真是假而其徒之言以為始以天主下降死復上作天主為萬物民生之大父母天也者無聲無臭人也者有軀有殼斷不可相混而今以天謂之降而為人以人謂之上而為天是有何依俦可感之端而若是之矯誣也爾試思之往古來今有是理耶嗚呼匪父何生匪母何育欲報之德昊天罔極而生民以來漸滅他不得之大本也彼乃以生我者

為肉身父母天主者為靈魂父母親愛崇奉在於彼不在於此以自絕其父母是果血氣之倫所可忍乎祭祀之禮所以追遠報本而孝子之不忍死其親也神理人情不得不然而彼乃毀主廢祭謂死者無知苟如是也彼所謂靈魂又何所依靠首尾橫決不成倫脊虎狼惡獸也尚有父子之情豺獾微物也尚有祭祀之義則彼雖圓顱方趾曾虎狼豺獾之不若人之無良胡至此極嗚呼君臣之義無所逃於天地而彼乃以教皇教主作為稱

號不啻如戎狄之酋長賊盜之渠率是欲攘
司牧之權使政化無所底命令無所施也禍
首亂本孰有甚焉嗚呼有陰陽必有夫婦不
易之理也彼乃以不嫁不娶妄托貞德其下
焉者男女混處穢亂風教由前則人之類滅
矣由後則人之倫瀆矣無父無君既至於此
夫婦之際又何可論至若聖母神父領洗堅
振等種種名色愈出愈幻要之為狐魔巫覡
符水詛呪之惑世者也粗具見識寧或疑眩
而竄是天堂地獄之說易哄蚩蠢然此釋氏

之陳腐也前人之辨已無餘蘊不足更事譬
破而是曾孰見而孰傳之也蔽一言曰謊說
也彼亦均受天賦并充人類而乃欲斃棄五
常滅絕三綱以求其身後之福於慌惚茫昧
之地者不亦惑之甚哉求福之道實有之矣
詩曰永言配命自求多福又曰豈弟君子求
福不回配命者合於理也不回者不為回邪
之行以要之也如是則福自至不如是則欲
求福而反取禍也予聞耶穌凶死之寂酷者
也其學之為福為禍於此可驗而不惟不為

之視以為懲乃以刑死為樂地刀鋸拊楊啓
不知畏如醉如顛莫可提醒非愚則妄吁可
哀矣嗚呼此若為光明正大之教則何必講
授於昏夜密室之中嘯聚於深山窮谷之間
而廢種錮孽失志怨國之徒下流至愚騙財
誨淫之輩互稱教友各設邪號截頭隱尾打
成一片也哉即此形跡已判其至凶至妖而
究竟為計不出於黃巾白蓮之包蓄耳彼豈
非生長於此邦食息於此邦者乎此邦之俗
只是四端之擴充五倫之培植而父祖之所

相沿師友之所相資皆在於是則何故捨此
邦所共由之坦路甘心於幾萬里外異類之
邪說以自就罟獲乎嗚呼彼浸漬之深錮者
盤覈之畢露者固已咸伏厥辜而其未及現
發者又不知糾結如何滋蔓如何死者雖不
足恤生者猶可不變彼皆吾赤子耳忍使之
一向沈蠱不思所以牖昏嚮明之方乎今予
敷示心腹非予言也乃惟天之經人之維古
昔羣聖之訓也嗟爾臣黎欬欬我父詔其
子兄詔其弟其所訛誤者必思所以開導焉

其未陷溺者必思所以勸戒焉又或有開導
勸戒而終不率者必思所以殄殪而懲創焉
俾此一種毋敢更容則豈不休哉豈不休哉
孟子曰經正則庶民興庶民興斯無邪慝矣
為今之道其惟敦行誼以修其孝悌忠信篤
經術以習其詩書易禮而勿以趨尚放縱背
前聖之規矩勿以考據細瑣侮先賢之訓詁
使我章甫衿紳粹然一出於天德天彝自然
之則則吾道不期扶而扶異學不期斥而斥
彼感發而自奮警惕而自悔者庸詎無去邪

歸正之理哉嗚呼書不云乎百姓有過在予
一人今茲邪教之橫肆職由予寡昧不能導
率之咎反躬自責若恫在已而載念爾一寒
一煖一飢一飽之節罔非予小子夙宵憧憧
則其於爾性命之所關係倫彝之所維持為
人為獸之所界限剖判者予又安得不重言
復言哀痛而諭之也

道光十九年十月十八日

유종외대쇼민인등척샤륵음

왕이 이르드 시곤, 샤디오회라 종용에 곧 오디 하논이
명함심을 일온 성품이라 함고 상셔에 곧 오디 크신 상
례하민의 계충을 나리오 시미 순히 함야 텃 텃 함 성품
이 잇다 함니 그 함 근원 비부 주시단 말이라 함 처음을 의논함
미 곧 온련이라 함며 곧 온 상례라 함, 문하 놀은 형례로
벼말함미 요상례는 주지 주양함 단 말이라 로 벼말함미며 곧
온 명이라 함고 곧 온 강충이라 함, 문순 순드 시 참가르
치고 고 함미 잇슴이 아나라 일리의 발함는 바에 두기
운이 알 현함며 스셔 말시란 의 운 전함는 바에 일만 품
물이 성육함여 사름이 어더 성품 된 재그 덕이 네히이
시니 곧 온 인과와 례와 지요 그 른과 닳시이시니

존온부조와군신과부부와당유와붕위라이다당연

히그러흔거시오안비포치 배포하야두 하며면강하

여지어흙을기다리며업슨지라그런고로존오덕하

늘이못빅성을너시미물이잇스면법이잇다하니조

춘즉하늘을순흙이되고어권즉하늘을거스름이되

는지라물잇빠하늘을밧들며상테를섬기느쎄엇지

스단과오룬밧게나미이시리오오회라복희신룡테

요테순의하늘을니어극을세오므로부터그공경하

여두려위하고공경하여니으며도라히피고공경하

여피는쎄오직이쎄름이오_단호우리부조 공조 의쎄

술 요순을놓 하시고헌장 문무를법밧 하신후에송

나라군현에이르히그런리롤발기며인심을말킨쎄

오직이 따름이라 호리느어 괴미잇셔도 오히려이 단
이라 이르거든 흥물며 음녀흥고 황탄흥고 괴게흥고
불경흥외되리오나라 의뎡뎡흥형벌이잇셔반다시
죽이고샤흥미업느니이니른바형벌노배형벌을그
치게흥미라오회라우리동방이문명흥식물에쳐흥
고인현의교화를이어아름다운풍속과어질게가르
치미그오직오랜지라크시다우리

성쇼계오샤하늘발그신명을받조와비로소구우를지
으샤^{나라를창업}이^{단말이라}륜을받쳐써사름의벼리롤세오
시고도흥을노펴써나라풍속을바르게샤

성조와신손이경계흥물게을니아니샤크게능히하
늘이디흥시미아름다운운이길히밋부고유현이무

리로나셔우흐로공경대부로부터아리로녀항팔셔
 가지밋쳐호마다슈스의 공저스르시 연셔하라 시 형 실 을 입 고 집
 마다락민의 시 연 셔 하 라 르 글 을 외 와 사 나 희 는 등 호
 로베근본을삼고계집은정렬노베등호거슬삼으며
 관혼상제를반드시네로쇼츠며스롱공상이각각그
 업을일위베이제사지니르히셔로도와버사라국개
 함님엇느니라하물며우리

령종대왕이던종의성인으로썬여나샤빅왕의통을니
 으샤성명과문물이찬연히가쫓더니불형이흥적승
 훈재이서셔양의글을사와일함을연쥬의혹이라호
 야천왕의법된말이아니여놀가마니서로속이고달
 니며성인의바른되아니여놀탐호고후함을일위여

침침히이적과금슈의지경의들시이에

덩묘계오샤그오리면더옥치성홀가근심_ㅎ샤그괴슈
를다스리고그나마노흐샤극히사로그적_ㅎ시는
생각을미루여_ㅎ여곰스스로시롭게_ㅎ는길을열으
시니은혜이만후_ㅎ미업고덕이이만성_ㅎ미업는지
라비록돈어의_고뜻과물_라완악_ㅎ과효경의_생몹_슬즐_즈음_ㅎ
이라도또_ㅎ맛당히감동_ㅎ야씨다를비이슬거시로
뒤본성을임의일코구습을고치지못_ㅎ여배신유토
샤옥소의니르러극진_ㅎ지라그약간지쥬잇는자는
그서로움을염선_ㅎ야창괴_ㅎ고몽연이지각업는자
는그허란_ㅎ음을즐겨조차몸이경지의쳐_ㅎ니도스스
로와쿨을지으며집의시례를던_ㅎ니도또_ㅎ물드

러더러움이이스며문모는머리씩근제도를변하야
감히도시의헝헝고소영은빅셔를마로져여바다비
를부르고져하니흥도와역절이이의급흔지라딘실
노우리

순종대왕과밋우리

정순대비겨오샤니미의잡_라래신간악함을다통톡하샤
부월의위엄을크게셜쳐확히열고통히다사리마아
니런들못나라의나라됨과사름의사름되음을가히
아디못하미이슬너나라오회라이제신유의가미스
십년이라금망이점점소하고샤괴도성하야혜역이
비암과모례로사림쏘는즈생이라그림즈를숨기고낭위_{잡플}라비틀밭
고와역적놈은성을변하고틀물하며요괴로운역관

은지물을 밧고 꼬통ㅎ야가만히셔양사름을즈모ㅎ
미두번의니르고셰번의니르러성괴논이역의접ㅎ
고믹낙은동당의두루ㅎ야신유의비ㅎ미즈못터ㅎ
이잇논지라이러므로나쇼지삼가

황쵸의모를쵸고공쵸이

즈성의명을밧드러감히하늘벌을힝치아니치못호니
비룩그미혼ㅎ야도라오지못ㅎ고륜물ㅎ야건디지
못ㅎ야머리를아오르고엇기를년ㅎ야스스로큰죽
엄의니르나내오딕빅성의부모된지라그능히이공
ㅎ고츄달ㅎ모음이가온디척척ㅎ이업스랴오회라
니드르니가라치지아니ㅎ고형벌ㅎ을일으되빅성
을앙화ㅎ다ㅎ니내맛당히샤꼬원위로배룩쵸ㅎ야

변석호야 버너의 쥬경에 잇는 신린과 밋우리 팔방스
너의 게 퍼고 호야 여곰 각 각 호연게 호노네 거의
공경홀지 여다 오 회라 쥬련 쥬의 호호는 재 곧 오 디이
호은 이에 하 놀을 공경호고 하 놀을 놓힌다 호니 하 놀
은 진실 노가 히 공경호며 가히 놓히련이 와 쥬의 배공
경호고 쥬 놓히는 밋자 는 불과 죄를 벗고 총을 요구 호
논 모 든 더 러 온 일 이 스 스로 하 놀을 만 홀이 호고 하 놀
을 더 러 이 는 디 도 라 가 미 오 나 의 공경호고 놓히는 밋
자 는 곳 향 자 이 른 바 사 단 과 오 룬 의 하 놀 명 호 시 를 받
기 며 하 놀 나 리 오 시 를 순 히 호야 일 용 스 위 에 리 의 당
호미 니 샬 특 호며 바 른 디 난 호 이 미 두 말 을 기 다 릴 거
시 아 니 오 쥬 쥬 여 슈 라 이 른 재 그 사 롬 인 지 귀 신 인 지

참인지거죽인지아지못하거니와그무리의말이배
하되쳐음에련쥬로배하강하고죽어다시올나가련
쥬를지어만물민성의대부모된다하니하늘이란자
는성취^{암소리}와^내업고사름이란자^는구각^{형체}이이
스니단연히가히서로혼잡지못할거시여늘이제하
늘노배이르되나려사름이되고사름으로배이르되
올나하늘이된다하니이엇지의희이가히후할단세
잇셔이러드시^{피무말속}이라^단하^는노^너의시^험하^야싱
각하^라왕고와^리금에이러^하리잇^슬가^보냐^오회^라
아^비곳^아니^면엇^지나^며어^미곳^아니^면엇^지기^르리
오^덕을^가갑^고저^하를^진디^호련이^망극^하지^라싱^민배^오
므로^식멸^치못^하를^큰근^본이^어늘^제이^에날^나흔^자로

뵘육신부모라하고련쥬자로녕혼부모라하고야친하고
고사랑하고좁히고밭들미져귀잇고여귀잇지아니
하여뵘스스로그부모를쓴흐니이과연혈귀의륜의
가히참아할비냐제스의네는뵘먼디를싸로고근본
을갑느바요호주의참아그어버이를죽음으로아니
미라신리와인정의시러곰그러치아니치못할거시
여늘제이에신쥬를헐고제스를폐하고일으되죽은
재아름이업다하니딘실노이가틀진디제니론바녕
혼은쏘어디의지하야부친비노슈미횡결하야륜덕
을일우치못함이로다호랑은몹슬즘성이로되오히
러부주의정이잇고식달은미물이로되오히려제스
의의이스쥬제비록둥군머리와모는발이나일쥬호

랑과의 달만 갖지 못하니 사람의 어지 못함이었지
이 극진한 덕이 르노오 회라 군신디의 노련디의 도망
할비업거늘 제이에 교황과 교주로 칭호를 지어 용적
의 추장과 도적의 거슈 갖출뿐이니 이 노소목의 생
뱃트이기라 권병을 아샤 하여 금정화로니 를비업고 명
녕으로 베풀비업게 흠이니 화의 머리와 란의 근본이
뉘심함이 이슬고 오 회라 음양이 이스면 반드시 부부
잇는 거시 밧고 지 못홀리어 놀 제이에 식 집가지 아니
향고 장가 드지 아니므로 배망녕되이 경덕이라 의탁
향고 그나 린자논 남네 혼쳐 하야 풍교를 더러이 고어
즈러이니 천으로 말미암은 즉 사람의 뉘멸할 거시오
후로 말미암은 즉 사람의 뉘기 더러온지라 아비업고

님군업스미임의이에니르니부부의즈음을또엇지
 가히의논하리요성모신부녕세견진등 련류혹하하
 놈의말이라
 갓튼종종명식이더옥닐스록더옥변환하니요지건
 더호파 관여와산미
 란말이라 와무덕이무방의부슈쳐주 부작과
 진언이
 라의세상혹하게하느재라약간견식이가즈면엇지
 후의심하고현란하리오가장이련당과더옥의말이
 어리고준준하니를속히기쉬우나그러하나이논쳐
 시의진뵈라 씩불도의목고
 씩은말이라 전사룸의분변함이임의여
 온이업스니족히다시벽파함을일삼지아닐거시로
 더이일즉뉘보고뉘던하노폐일언알황철이로다제
 또훈고로게하눌품부함을밧고아을나사룸의류의
 치와이에오상을뢰하야바리며삼강을멸하야손코

배그신후의복을황홀망미흐사의구흐는재또흔혹
홀이심치아니나복을구흐는도리실노인논이라시
에곧오디기리명을씩홀이스스로만흔복을구흐미
라흐고또곧오디기제흔군지복을구흐미회곡지아
니흐다흐니명을씩흐다홀은리에합당흐미회곡
지아니흐다홀은회샤흔힐을흐야배요구흐지아
니흐미니이갓치흔즉복이스스로니르고이갓치아
니흐즉복을구흐고자흐되도로혀앙화를취흐느니
라너드르니여슈는홍스를가장참혹히흔재라흐니
그흐의복되며앙화되미이에가히증험홀거시로디
오직보아배징계흐지아니홀썬아나라이예형벌흐
야죽으므로낙지를숨아도거_이칼_과톱_와형_양단_말이

라을민연히두려워홀졸을아지못하야취호드스호고
 밋친드스하야가히배잇그러일세오지못하니어리지
 아니면곳망녕이라가히슬푸도다오회라이만일광
 명덩대호괴된즉엇지반드시혼야밀실가온디강호
 고가라치며심산공목사이의불너모와폐종고얼_죽페
 짜_죽죄인라의뜻을일코나라원망호는무리와하류지
 우의지물속히고음란가라치느무리셔로교위라일
 곳고각각샤호를베푸러머리를감초고쇠리를숨겨
 일편을타성_{단호}말_치이라호리오이형적의임의그지극
 히흥호고지극히요괴로움이판단호고필경계교는
 황건과빅년의괴_{황건}로_웁도_년적_은다_벧요 포축의나지아니
 미라제엇지이나라의셔상장호며이나라의셔식식

밥먹으며숨자아니흐얏느냐이니라풍속은다만이
쉬단말이라^{쉬단말이}우^우며오름을비식^{무단말이라}
스단을확충^{단말이}라^우며오름을비식^{무단말이라}
하야아비와하라비의셔로연습흐느바와스승과벗
의셔로조뢰흐느비다이에잇거늘곳무삼연고로이
느라흐가지말미암느바평탄흐닐길을뜻코몇만리밖
괴이류의샤설을감심흐야베스스로그물과함정의
나아가느나오히라져침치흙이심고흐자^{와반희의}
다드러느자느딘실노임의다그죄의업디여시나그
밋쳐현발치못흐자느^{조규결}^{말이}라^단미엇더^며
조만말이라^단미엇더^며흐줄을아지못^흐노니죽은자
느비록죽히불상치아니^흐나산자느^오히려가히크
게변^흐거시니^제다느^의적^지라^츠마^흐여^금일^향침

고흥야 배어 두음을 써다라 발근 디향 흠방 소를 생각
 지아니 하라이 제내 심복을 펴 뵈느니 내말 숨이아니
 라이에 오덕 하늘의 텃 텃 하미 오사름의 버리 오넷모
 든 성인의 가라치심이라 슬푸다 너 신려 신하와 빅
 성이라는
 공경 하며 공경 하야아 비느 그 하식을 일으고 형은 그
 아 하를 일너 그와 오 그르만
 함이라 훈 밧자느 반드 시 배여 러
 인도 하를 생각 하고 그 함너 지아닌 자느 반드 시 배 권
하고 경계 하를 바를 생각 하고 하호 여러 인도 하고 권 하
 며 경계 하이 이셔도 마참너 쫓지아 낫는 재 잇거든 반
 드 시 배 죽여 정창 하를 바를 생각 하야이 일종으로 하여
 곰 감히 다시 용납 하이 업슨 즉 엇지아 람답지아니며
 엇지아 람답지아니라 밍지 하야 디 경이 바른 즉셔

민이 흥괴하고서 민이 흥괴하면 이샬 특흥미업다 흥
시니 이세홀도리노 그오직 흥의를 도라이 흥야 배그
호테 통신을 닷그며 경술을 독실이 흥야 배그 시셔 역
테를 익이고 추상 방종함으로 배천성의 규구를 비반
치 말며 고거 세쇄함으로 배천현의 훈고를 업슈이 너
기 지 말아 우리 장보금신 선배와 쵸 판이 라 요 으로 흥여 음슈연
히 흥갈 갖치던 덕파련이의 자연 흥법의 난즉 우리도
느 붓드물과 약지아니 흥야도 붓들니 이고 이 단애 흥
은 비척 흥물과 약지아니 흥야도 비척 흥리니 세 감발
흥야 스스 로 쉼치며 경척 흥야 스스 로 뉘웃는 재엇지
샤 특흥을 바리고 바른 디로 도라 올 리 업스 리 오 회
라 셔 천의 일이지아니 흥였는 야 백성의 허물 이 시미

나흐사름의잇다흐니이제이샤교의횡스흠이현혀
나과미의능히도솔치못흐허물노말미아름이라몸
의도로여스스로척흐미알푼거시몸의잇는듯흐야
곳싱각건디너의흐번차고흐번더우며흐번쥬리고
흐번비부른절이나쇼주의숙쇼로동동치아니미업
스즉그너의성명의판계흐바와류이의유지홀바와
사름되고즈음성될계한부관흐밭샤의니쇼엇지시러
곰중언부언흐야의통히일으지아니흐리오
도광십구년십월십팔일

奎章閣提學趙寅永撰進

查本閣錄學錄卷末謝聖







